

## 선 넘은 北 ... 격앙된 靑 ... 한반도 '시계 제로'

북한, 개성공단·GP에 군부대 전개 예고 ... '불바다론'까지 청와대, 강도 높은 비판 ... 문대통령, 안보 원로들 의견 청취 김연철 통일부 장관 "악화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사의 표명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가 최대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이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데 이어 17일에는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시사하는 등 군사도발 수위를 끌어올리자 우리 정부도 그동안의 인내 모드에서 벗어나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관련기사 2·4면〉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입장문을 통해 우선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연대군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북한 총참모부는 이어 "북남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전개하여 전선 경계근무를 철저히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접경지역 부근에서 정상적인 각종 군사 훈련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총참모부는 이러한 군사행동계획에 대해 보다 세부화해 이른 시일 안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준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불바다론'을 다시 꺼냈다. 통신은 남측을 향해 "착박하게 잊혀져가던 서울 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끔찍한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겠는데 그 뒷담을 할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하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와 국방부, 통일부는 이날 오전 10분 간격으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막말에 가까운 담화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예고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김영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발언을 원색 비난한 것과 관련,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이어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은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의 사리 분별 못 하는 언행으로 인한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외교·안보 분야의 원로들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며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윤재관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부터 2시까지 진행된 오찬에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와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임동원·박재규·정세현·이중석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전 의원이 함께했다.

국방부도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를 예고한 데 대해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동진 합참 작전부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우리 군은 현 안보 상황 관련,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군도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정찰기 등을 통해 정찰활동을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 통일부 차관도 이날 오전 11시20분 브리핑에서 "오늘 북측의 발표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이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어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6층 기자실을 찾아 "저는 남북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제게 주어진 책무가 아닐까 생각했다"고 사퇴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러한 뜻을 이날 오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연남뉴스

5·18 민주화운동법 개정안 보나...▶6면

잠 못드는 밤 손흥민이 온다 ▶18면



정세균 총리, 3륜 전기차에 시승 17일 오후 영광 대마전기차산업단지를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산단 내 대풍EV자동차 공장에서 필리핀 수출물량인 3륜형 전기차를 탑승해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정세균 총리 취임 후 첫 전남 방문 영광서 e모빌리티 기업 투자 협약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남을 방문했다. 〈관련기사 3면〉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도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 수출에 힘쓰는 기업인 격려를 위한 경제 행보로, 코로나 유입 초기 사태 수습을 위해 상주했던 대구를 제외하면 첫 지방 방문이다.

정 총리는 17일 오후 영광 대마전기차 동차 산업단지에서 열린 e-모빌리티기업 투자 협약식(전남 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중소기업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경제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며 투자 기업을 격려했다.

정 총리는 이어 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다양한 기술과 업종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혁신을 가로막는 낡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 기업이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의 제약 없이 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을 시도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14개 특구가 지정됐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각 지역의 참신한 신산업 아이디어가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국가균형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

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선정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원격교육, 바이오헬스 분야 등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인공지능, 가상현실, 미래차, 로봇 분야 등 유망 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과 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도 혁신하고, 규제자유특구와 스마트도시를 통해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김영록 전남지사 등 참석자들과 함께 다양한 e-모빌리티 제품을 둘러보고, 조소형전기차를 시승하는 등 e-모빌리티에 관심을 보였다.

정 총리는 e-모빌리티 기업인 ㈜대풍 EV자동차 공장을 방문, 전기이륜차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필리핀에 1000만 달러(4500대)어치 삼륜차를 수출하는 기념식에 참석해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조대부고 총동창회**  
**2020년 24차 회기 정기총회**

**일시**  
2020. 6.25.(목) 18:30

**장소**  
S타워웨딩컨벤션 4층

☎ 062-372-1000  
☎ 광주 서구 시청로 45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츰츰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촘촘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Sulwhasoo

•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